

회원사탐방

inoverio 실현으로
도시위 삶을 변화시키는
현대산업개발

“달나라에 호텔 못 지으란 법이 어딴어” “사하라사막에 오페라하우스 못 지으란 법이 어딴어”

현대산업개발(대표 이방주)은 2000년 초 이와 같은 광고 카피를 실천하듯 혁신적 사고방식으로 ‘희망·미래·가치’를 건설해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혁신적 사고**는 이미 지난 1970년대 아무도 주거 공간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압구정동을 투자가치 0순위의 아파트 단지로 변모시키는 등 우리나라의 주택산업을 이끌어 왔으며, 현대산업개발이 지은 아파트는 ‘대한민국 대표 아파트’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국내 최대 주택건설업체로 한국 주거문화 선도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30년 동안 30만 호의 아파트를 지어 국내 최고의 주택건립 실적을 기록하며, 주택건설 부동의 1위로서 주거문화 향상에 기여해 왔고, 자연 친화적 설계, 우수한 시공력, 끊임없는 기술개발, 철저한 품질관리, 신속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보다 안락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을 창조하고 있다.

새로운 주거문화의 가치와 다양한 고객 욕구에 따르는 신평면 개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현대산업개발은 2000년부터 평면설계 저작권 등록을 시작, 현재까지 215건의 설계안 등록으로 국내 최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

최고의 브랜드 가치- I'PARK

2000년대에 들어서는 경제성장과 주택보급률의 향상으로 소비자는 단순히 먹고 자는 ‘사는 곳’으로서가 아닌 한단계 높은 수준의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문화공간’을 원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상황에 맞춰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30년간 현대아파트를 지어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중심의 문화적·환경적 가치를 조화시켜 기존의 아파트와 차별화되는 새 아파트 브랜드 아이파크(I'PARK)를 2001년 3월에 도입하고 문화적, 친환경적 가치가 조화된, 앞선 개념의 아파트 공급에 나서고 있다.

오는 5월 입주예정인 삼성동 I'PARK는 아파트 부지의 90%가

녹지공간으로 건폐율 8%인 국내 최고수준의 환경친화형 아파트로,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이어 ‘대한민국 대표 아파트’의 명성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고객가치의 극대화를 창조하는 혁신적인 기업으로 정상의 위치에서 있는 현대산업개발은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1992년 한국건축문화대상 본상, 1998년 한국건축문화대상, 살기 좋은 아파트 수상을 비롯해 각종 언론사 선정 히트상품 및 최우수 건설업체 평가에서 항상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1989년 분당 신도시 시범단지 설계공모전 최우수상과 2002년 12월 화성동탄 신도시 설계공모전에서 최우수상 수상으로 탁월한 신도시 설계 능력을 입증



- 3 1. 이방주 시장
2. 압구정 현대아파트
3. 아이타워
4. 삼성동 I'PARK



한 바 있다.

문화생활 공간으로 아파트를 재창조

현대산업개발은 아파트를 단지 생활하는 공간이 아닌 각종 문화를 공유하며 생활 그 이상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정의하고 아파트 건축시 설계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친환경적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향균, 탈취, 전자파 방지 및 실내 공기, 습도조절, 수맥차단을 위해 각종 상품을 연구개발함은 물론 유해가스 및 미연소 가스 등을 자동적으로 실외로 배출하는 인공지능 공기정화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친건강 well-being 아파트를 비롯해 새집 증후군과 실내공기질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 건설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품질 중시경영'의 일환으로 기존의 A/S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한 A/S 통합관리 시스템 I-click(아이클릭)을 구축했고, A/S

업무 효율화 및 통합관리를 위해 CS 팀을 신설하는 등 고객만족을 최우선시 하고자 하는 경영철학을 더욱 강화했다.

이러한 I-click(아이클릭)구축 및 CS팀 신설은 더욱 체계적인 고객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이미 운용중인 해피콜 서비스를 비롯해 입주자 응대 매뉴얼 활용, 품질경영대회, 현장 품질순회교육 실시와 맞물려 고객 서비스 분야에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불러올 것이라 예측된다.

건전한 재무구조의 최우량 건설업체

1999년 8월 2일부로 현대그룹으로부터 계열분리된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해 매출 2조 7,155억원, 경상이익 3,041억원, 당기순이익 2,073억원을 달성했으며 부채 비율은 78.3%로 낮추어 국내 건설업체 중 최우량의 재무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현대산업개발은 올 한 해도 건

실한 재무구조 확립 아래 '양질의 수주확대', '내실경영 및 윤리경영 추구', '리딩 브랜드 I-PARK의 명품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건전한 재무구조와 투명경영의 실천으로 끝없이 성장하는 현대산업개발은 주택건설외에도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부산~김해 경전철, 울산신항, 마산항, 북항대교 등 사회간접자본(SOC)시설 투자에도 박차를 가함으로써 국토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인간 중심의 건축문화에 공헌하는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의 도약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현대산업개발은 올 한해도 차별화된 설계, 안전한 시공, 고객만족 서비스를 중심으로 국내 주택건설부문 선두기업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여 새로운 주택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나아가 토목 및 SOC 부문도 확대를 지속해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인적재산을 그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기업문화에 따라 현대산업개발 전 임직원이 'Innovative', 'Intelligent', 'International', 'Imaginative' 적 사고를 배양하도록 힘쓰며, 이를 토대로 더욱 편하고 고객가치를 극대화하는 주택 건설에 앞장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